

# 해남 화원산단에 복합문화시설 청년문화센터 들어선다

### 산자부 공모 선정...86억원 투입 2027년까지 5층 규모 건립 체육·문화지원실 등 갖춰 청년 근로자 문화·복지 시설 활용

해상풍력 배후단지가 될 해남 화원산단에 오는 2027년 청년문화센터가 들어선다.

해남군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 '2024년 산단환경조성사업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화원조선농공단지에 복합문화시설인 청년문화센터가 건립된

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립사업은 농공단지 근로자의 문화생활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 청년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됐다.

건립에는 국·도비 64억원 등 총사업비 86억원이 투입된다.

센터는 화원산단 1300㎡ 부지에 연면적 930㎡,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식당과 다목적실, 체육 시설, 문화지원실 등을 갖춘다.

이 공간은 청년 근로자와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교육·행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 서남권 조선업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는 화원조선농공단지는 대한조선을 포함해 21개 협력 기업이 입주, 1299명이 일하고 있다. 올해 예상 연매출액은 1조원이다. 그동안 청년을 위한 문화 공간과 편의시설이 부족해 인력난 등을 겪어왔다. 대한조선 수주 물량이 늘면서 상시 근로자가 300명 넘게 부족한 상황이다.

화원산단은 서남 해안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배후단지가 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99만㎡(34만평) 해상풍력 기지재 집적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해상풍력 배후단지가 조성되면 청년문화센터가 근로자들의 생활 기반시설로 활용될 것으로 해남군 측은 기대했다.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66만㎡·20만평)와 화원산단(20만㎡·6만평) 등 총 86만㎡(26만평)는 전남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다음 달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산단의 부족한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청년들이 일하기 좋고, 문화와 휴식이 있는 농공단지로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며 "화원산단은 향후 해상풍력 배후단지로 육성할 예정으로, 센터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오는 2027년까지 청년문화센터가 들어서는 해남 화원조선농공단지 전경. (해남군 제공)



## 영암쌀, 쌀 페스타 '농업브랜드 대상' 수상

### 2년 연속 으뜸 쌀 생산지 명성

영암군이 29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쌀 페스타'에서 농업브랜드 대상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수상했다. <사진>

쌀 소비 촉진 대국민 프로젝트를 구호로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쌀 페스타는 국내 쌀 소비감소와 과잉 재고 해소, 쌀 농가 돕기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은 영암군은 이번 수상으로 2년 연속 전국 으뜸 쌀 생산지로 이름을 알렸다.

행사장에는 지역 대표 쌀인 영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달마지쌀', 서영농협RPC의 '학이머문쌀', 대우미곡RPC의 '맑은공기쌀

내용', 영암미곡RPC의 '새청수미' 등이 전시·홍보됐다.

다양한 영암군 쌀 가공품도 소개됐다. 3대째 이어오는 남도 술 명가 도갯집의 '도갯집막걸리'와 지역특산물 무화과 캐주얼브랜드 '문득', 영암군 수제맥주 브랜드 '늘찬맥', 2023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월출도가의 '보리' 등 주류와 순달에서 고구마와 쌀로 만든 간식 '놀랐구마' 등도 전시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쌀이 영암이라는 문구처럼 쌀 주산지 영암의 쌀과 쌀 가공품을 선보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소비 촉진과 판매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목포 시내버스 노선 조정...전통시장·통학노선 중심 개편

### 시범운영 거친후 7월 정식운영

목포시가 현재 운영되는 시내버스 노선을 전통시장과 통학노선 등을 중심으로 조정한다.

목포시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 일부 부를 조정해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노선 개편은 운행대수는 현행대로 유지하

고 지난 3개월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4000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시는 전통시장과 통학노선 등 교통약자 이용노선 중심으로 노선을 조정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노선의 경우 자유시장과 청호시장, 동부시장 등을 경유하는 노선을 검토한다. 통학노선으로는 용해·백련지구·북항 6개학교·문태중·영흥중 등 주요 학교와 백련대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조정된다. 향동시장과 삼학도 경유노선 추가, 신법원

구간 조정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목포시는 6월 초 버스회사 측과 협의 및 현장확인, 23일부터 시범운행을 거쳐 7월 정식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1·2·3번 간선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보조노선을 신설하는 쪽으로 노선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무안군민 20년 만에 팝콘 먹으며 3D영화 본다

### 다음달 말 '작은영화관' 개관

### 복합문화센터에 183석 규모

"영화 한 편 볼려면 큰맘 먹고 목포까지 가야 했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무안군민들이 20여년만에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볼 수 있게 됐다.

무안군은 복합문화센터 개관에 맞춰 문화 향유권 격차해소를 위해 6월 말 작은 영화관을 개관한다고 29일 밝혔다.

무안의 최초 영화관은 지난 2002년 무안을 무안경찰서 옆 2·3층에 190규모로 '무안시네마 극장'을 개관했지만 2·3년 지나지 않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군은 2004년부터 '찾아가는 영화관'을 기획해 승달문화관에서 지역의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다.

무안군은 남악지역의 신도심권과 연극, 영화 등 문화생활을 누리기에 열악한 농촌지역으로 이뤄져 군민들의 문화향유 측면에서 해소방안을 고민해 왔다.

군은 최근 개관한 복합문화센터 6층에 1관 77

석, 2관 106석 등 183석 규모로 최고 음향과 화질의 시설을 갖춘 영화관을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최신 영화뿐만 아니라 추억의 영화, 3D 영화까지 상영할 예정이다.

하루 5차례씩 영화를 상영하며 요금은 시중보다 30% 저렴한 2D 7000원, 3D 9000원을 받는다.

영화관에 매점도 있다. 팝콘, 오징어, 나초, 불고기 왕꼬치, 숯불후라이드, 고구마스틱 등 간식과 콜라, 차, 에이드, 주스 등 음료도 판매한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목포시 한국나전칠기 박물관 건립 공론화위원회 출범

### 20명 구성...건립 사업 여론 수렴

목포시가 한국나전칠기 박물관(가칭) 건립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최근 출범식을 열었다.

공론화위원회는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기관·사회단체 추천을 통해 20명으로 구성됐다. 관광, 문화, 건축, 역사, 박물관 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와 기관·사회단체, 주민대표, 시의원 등이 참여한다.

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손해원 전 국회의원으로 부터 나전칠기 작품 294점을 기증받으면서 추진되고 있다.

전통 공예기술 계승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처음 공립 나전칠기 박물관을 목포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박물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주요 현안을 사안별로 논의한 뒤 최종 권고안을 목포시에 제출한다.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장에는 김종익 사단법인 상생나무 이사장이, 부위원장에는 최영수 세한대학교 교수가 뽑혔다.

이후 박물관 사업 추진 경과보고, 질의·응답, 향



목포시(시장 박홍률·앞줄 가운데) 한국나전칠기 박물관(가칭) 건립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출범식을 열고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후 일정 논의 등을 했다. 두 번째 회의는 오는 6월 5일 목포문화도시센터에서 열린다. 회의 전에 현재 자연사박물관에 임시로 보관 중인 기증 작품 120점의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시가 기증받은 나전칠

기를 새로운 관광에 활용할 필요가 있기에 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목포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공론의 장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kwangju.co.kr



## 영암군-HD현대삼호 상생협력 업무협약

### 인구 확대·지역인재 채용 등 협력

영암군이 HD현대삼호(대표 신현대)와 최근 HD현대삼호 본관에서 '지역-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 정주인구 확대 ▲지역 인재 기업 우선 채용 ▲고향사랑기부금사업 발굴·시행 ▲지역 우수 농특산물 이용 ▲영암사랑상품권 구매 활성화 ▲재능기부 자원 교류 ▲민·관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협약은 지난해 12월 영암군이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회장 고창희)와 협약을 맺은 뒤 개별 기업과 처음으로 체결한 지역-기업 상생협력 협약이다. 우승희 영암군수와 신현대 HD현대삼호 대표는

"이번 협약을 다중물 삼아 지역사회와 기업이 상생하는 다양한 접촉면을 만들어 상호발전의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역-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 기업지원팀을 포함한 7개 팀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 지역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오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성과로 지난 4월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는 체육행사 시상품을, 5월 대불산학용협회는 직인 상여금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각각 지급했다.

또 대불산단 7개 구내식당에서는 지난 24일 현재 20kg들이 171포의 영암 쌀을 구매해 밥을 짓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신안군, 전남대 등과 양묘사업 활성화 협약

### 정원도시 조성 협조체계 구축

신안군이 주민참여형 양묘소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신안군은 3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1004섬 정원도시 조성 및 주민참여형 양묘소득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신안군과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 대림묘목농원(JB가든센터), 전남대학교(원예생명공학과), 네덜란드의 Plantipp B.V.가 참여한다.

협약을 맺은 기관-기업은 앞으로 정원수협동조합원을 교육하고 이들에게 현장실습과 상담을 제공한다.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정원 식물을 개발하고, 가공 등을 돕는다. 이 밖에도 1004섬 정원

도시 조성에 협력하고,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대림묘목농원은 전국 묘목 유통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묘목업계에서 처음으로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이다.

네덜란드 Plantipp B.V.는 세계적인 유통·로열티(상표권) 관리 전문기업이다. 식물 육종가를 지원하고 신종종을 관리한다.

전남대학교 원예생명공학과 한태호 교수는 30여 년간 알스트로메리아, 장미, 수국의 유전 육종 연구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았다.

협약을 통해 신안군은 1004섬 정원조성과 주민참여형 양묘소득사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 창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